



즉시 배포용: 2021년 3월 2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**CUOMO 주지사, 뉴욕주 예산에 추가 세입 25억 달러를 인가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를 발표**

*추가 세입은 연간 합의 전망의 일부로 승인되고 글로벌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이 기대를 뛰어넘음으로써 추진*

*주정부는 여전히 2년 세입 손실인 175억 달러를 안고 있으며, 코로나19가 계속 제기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위험이 유지 중*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2년 동안 추가 세입에서 25억 달러를 승인하도록 입법부의 상원 및 하원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. 합의는 합의 세입 예측 프로세스를 통하였으며,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경제적 예측과 그 예측이 제공할 세입에 동의하는 연간 예산 결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. 합의를 통해 3월 31일에 종료되는 당해 회계연도에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승인되고, 다음 회계연도에 약 15억 달러가 승인됩니다. 그러나 주정부는 여전히 2년 동안의 세입 손실 175억 달러와 싸우고 있으며, 합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이를 봉쇄하지 못할 경우 경제 부문이 다시 폐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높은 위험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.

**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경제가 기대치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있으며 백신 공급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지만,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함에 따라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. 뉴욕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전 리더십이 뉴욕을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주 및 지방세(state and local tax, SALT) 공제율에 대한 상한을 종료하지 못한 연방 정부는 원조에 150억 달러를 제공해야 합니다. 이 합의에 도달하고 예산 프로세스를 진행한 입법부의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"

합의에 따라, 행정부 및 입법부는 뉴욕주의 급여 고용이 회계연도 2022년에 8.8%

증가할 것이라고 동의하며, 이는 현재 2021년 회계연도의 급격한 12.1% 감소 이후 4월 1일에 시작됩니다. 2021 회계연도에는 개인 소득 증가율이 6.5%, 2022 회계연도에는 2.8%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임금 인상은 2021 회계연도의 경우 2.6%가 하락한 후 2022 회계연도에서는 6.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Robert F. Mujica** 뉴욕주 예산국(State Budget)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

"기대치보다 세입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,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세입 손실과 싸우고 있습니다.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본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이를 상쇄해야 합니다. 이러한 새로운 세입은 연방 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몇 년 동안 적자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